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17년 11월 14일(화) 10:00
담당자	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(044-550-4206, wlim@kdi.re.kr) 정영호 KDI 경제정보센터 여론분석팀장 (044-550-4655, jyoung@kdi.re.kr)
배포일시	2017년 11월 14일(화) 09:0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IMF 외환위기 발생 20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

- KDI는 IMF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아 외환위기가 국민들의 인식과 삶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
- 그 결과, 일반국민 57.4%가 지난 50년간 한국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로 'IMF 외환위기'를 지목했고, 일반국민의 59.7%가 IMF 외환 위기가 본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.
 - 응답자의 39.7%가 '본인, 부모, 형제 등의 실직 및 부도를 경험'했고, 64.4%가 '경제위기에 따른 심리적 위축'을 느낌.
- 외환위기의 원인은 '외환보유고 관리, 부실은행 감독 실패 등 정책적 요인(36.6%)', '정경유착의 경제구조 등 시스템적 요인(32.8%)'으로 평가했으며, 조기 극복의 원동력은 '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 단합(54.4%)', '구조조정 및 개혁 노력(15.2%)'에 있다고 평가

- 일반국민들은 20년 전 발생한 외환위기가 ‘일자리 문제 및 소득격차’ 등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·사회적 문제를 심화시켰으며,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‘비정규직 문제(88.8%)’라고 답함.
-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이한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‘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성 강화(31.1%)’, 사회적 측면에서는 ‘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신뢰 구축(32.7%)’, ‘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마련(32.5%)’ 이라고 응답
-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“국민들이 외환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‘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 단합’을 ‘구조조정 및 개혁 노력’보다 더 높게 평가한 것에 주목한다”라며 “포용적 성장을 통해 사회 응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라고 제언함.
- 한편 KDI는 오는 15일 기획재정부와 함께 ‘아시아 외환위기 20년 후’라는 주제로 ‘2017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’를 개최함.

❖ 첨부. 세부 조사 결과

❖ 첨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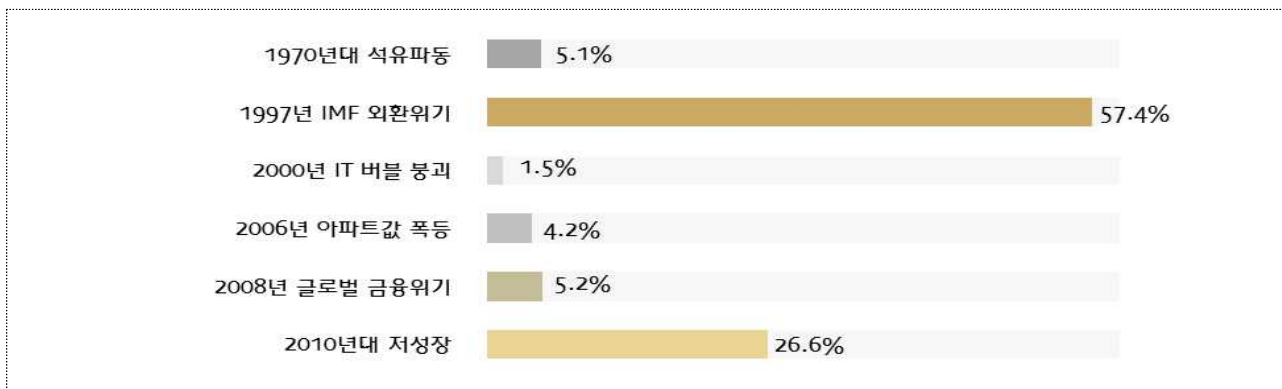
IMF 외환위기 발생 20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

1. 세부 조사 결과

1) IMF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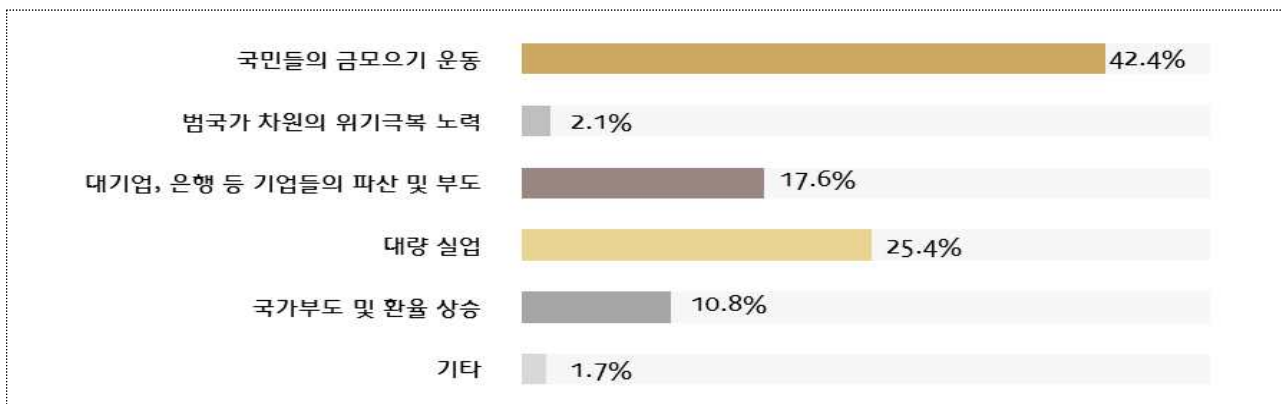
- 일반국민은 지난 50년간 한국경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'IMF 외환위기 (57.4%)'를 지목했으며, 다음으로는 '2010년대 저성장(26.6%)', '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(5.2%)', '1970년대 석유파동(5.1%)' 순이었음.

[그림 1] 지난 50년간 한국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



- 'IMF 외환위기'하면 가장 먼저 '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(42.4%)'을 연상했으며, 다음으로 '대량실업(25.4%)', '대기업, 은행 등 기업들의 파산 및 부도 (17.6%)'를 떠올렸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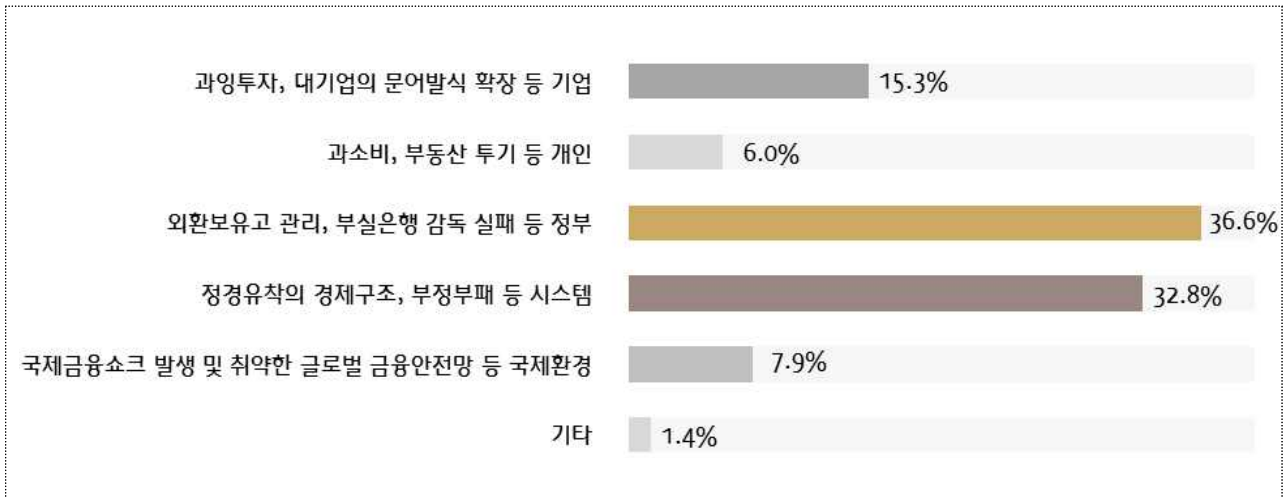
[그림 2] 'IMF 외환위기'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



2) IMF 외환위기 원인과 극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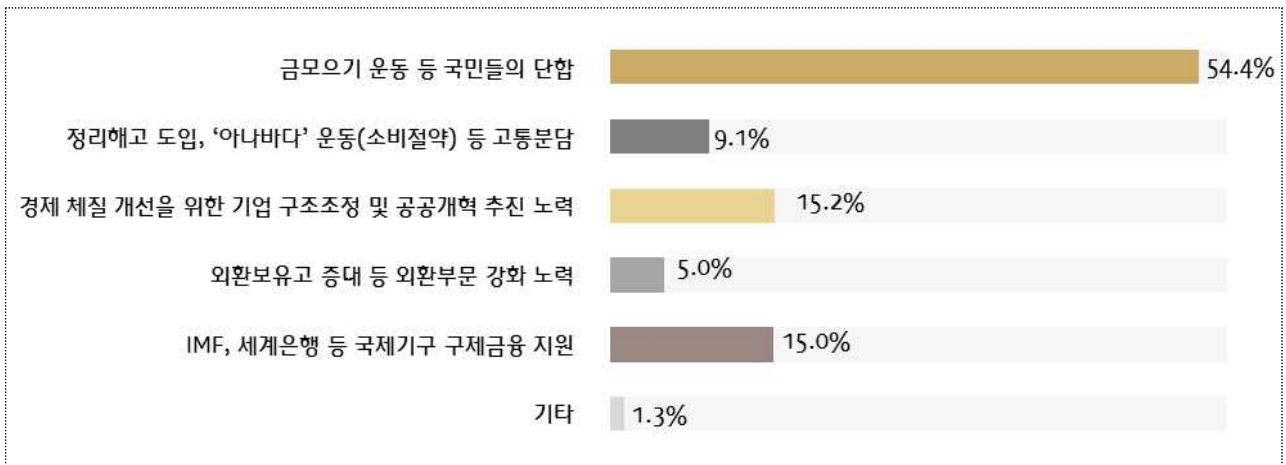
- (원인) 일반국민의 36.6%는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 외환보유고 관리, 부실은행 감독 실패 등 당시 정부정책에 있다고 인식하였으며, 32.8%는 정경유착의 경제구조, 부정부패 등 시스템이 원인이었다고 응답

[그림 3]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원인



- (극복)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원동력으로 범국민적 '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들의 단합(54.4%)'을 최우선으로 꼽음. 다음으로 '구조조정·공공개혁(15.2%)', '구제금융(15.0%)' 등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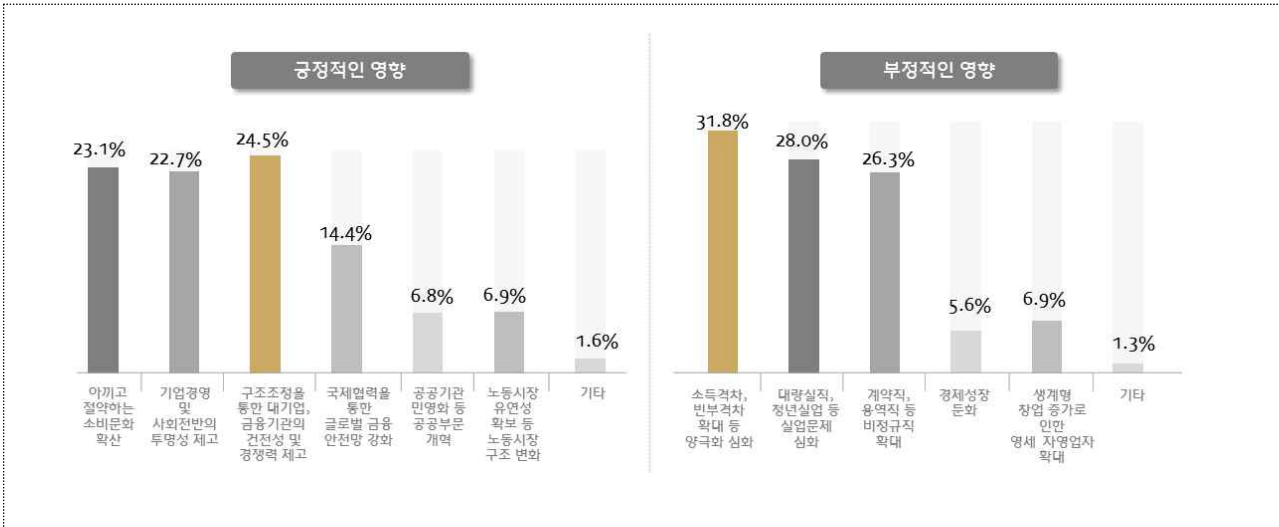
[그림 4] IMF 외환위기 극복의 원동력



3) IMF 외환위기의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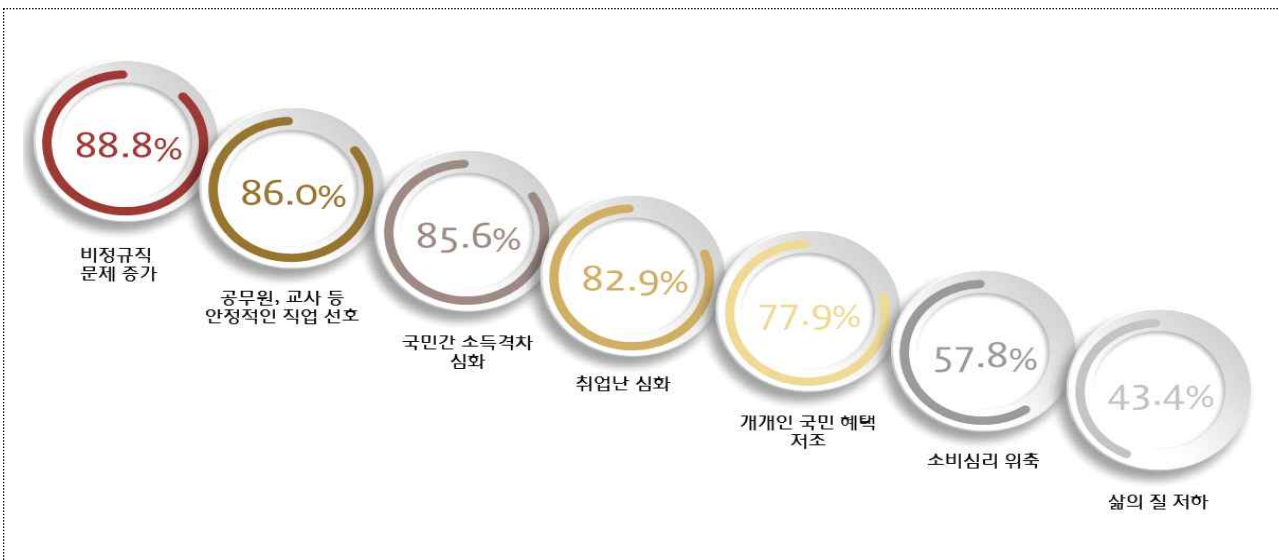
- (한국경제) IMF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'구조조정을 통한 기업(대기업, 금융기관 등)의 건전성 및 경쟁력 제고(24.5%)'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, '소득격차, 빈부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(31.8%)'라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옴.

[그림 5] IMF 외환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친 긍정적&부정적 영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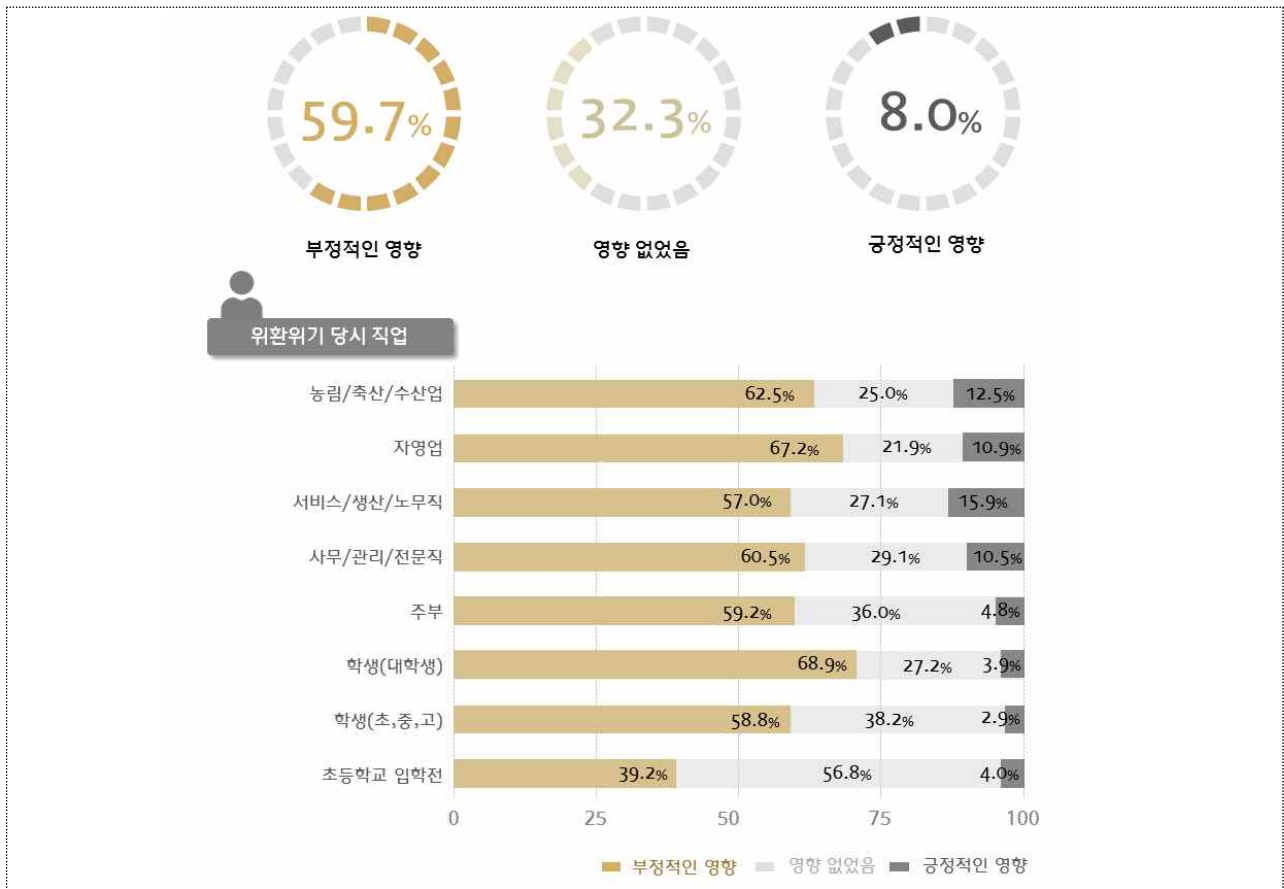
- 또한 IMF 외환위기가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'비정규직 문제(88.8%)', '안정적인 직업 선호(86.0%)', '소득격차(85.6%)' 등을 증가시켰다고 인식

[그림 6] IMF 외환위기가 현재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



- (개인) 일반국민의 과반(59.7%)이 IMF 외환위기가 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.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 자영업자(67.2%)와 대학생(68.9%)이 가장 삶의 큰 피해를 입었다고 평가

[그림 7] IMF 외환위기가 당시 본인의 삶에 미친 영향



- 또한 IMF 외환위기 당시 일반국민의 64.4%가 '경제위기에 따른 심리적 위축'을 경험했으며, 57.5%는 외환위기로 '국가관에 대한 변화'를 경험했다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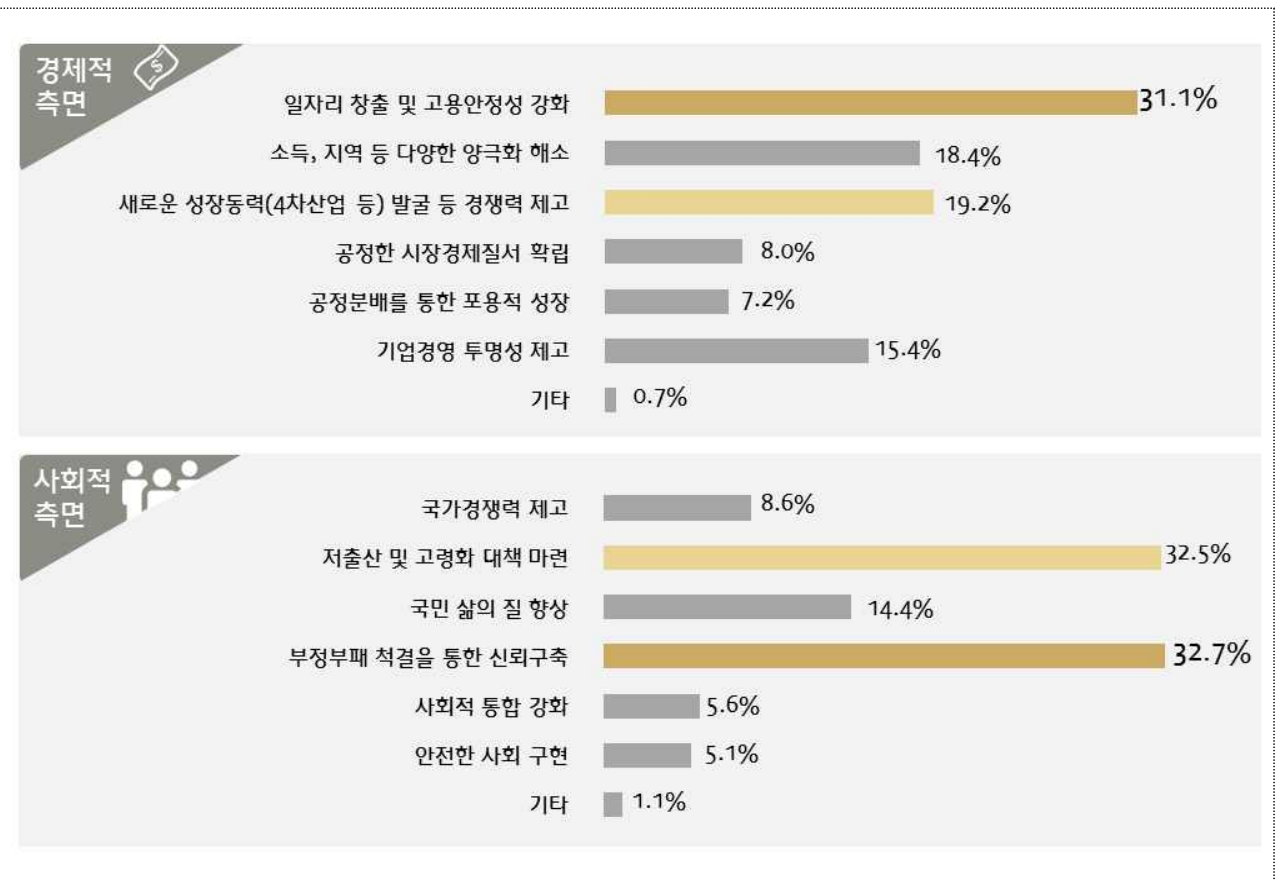
[그림 8] IMF 외환위기 당시 본인이 경험하거나 느꼈던 것



4) 향후 중점 과제

- 외환위기 발생 20년이 지난 지금, 우리나라에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'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성 강화(31.1%)'이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'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신뢰 구축(32.7%)', '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마련(32.5%)'이라고 응답

[그림 9] 향후 과제: 경제적 측면 & 사회적 측면



- 조사대상
 -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,000명
- 조사방법
 - RDD(Random Digit Dialing)를 이용한 전화조사(유선 12.4%, 무선 87.6%)
- 조사기간
 - 2017. 10. 23~10. 26
- 표집방법
 - 성별, 연령, 지역에 따라 층화표집
- 표본오차
 - 95% 신뢰수준에서 ±3.1%p
- 조사기관 : KDI 글로벌경제연구실, 여론분석팀